

[리뷰]

여행 속에 담긴 인간 정신의 자유로움과 한계 : 레비-스트로스의 『슬픈열대』 읽기

허 재 영*

1. 시작하기

사전적 의미에서 ‘명저’란 ‘이름난 저서’나 ‘훌륭한 저술’을 지칭한다. 레비-스트로스의 『슬픈열대』를 강의할 때마다 이 책이 왜 명저일 수밖에 없는지, 또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책을 읽혀야 명저로서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을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나의 ‘명저 읽기’ 강의를 언제나 여행의 의미와 읽기 방법으로부터 시작된다. 여행은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을 의미하며, ‘읽기 방법’은 말 그대로 ‘글을 읽고 독자 입장에서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 가는 방법과 태도’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는 레비-스트로스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슬픈열대』는 레비-스트로스가 인류학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민족지학자로서 1937년부터 1938년까지 브라질 원시 부족을 탐험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룬다. 그런데 이 책이 처음 발행된 것은 1955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일반적인 기행문과는 달리 제1부에서 ‘여행의 마감’을 부제로 사용하고 있다. 여행 체험을 서술하면서 왜 ‘마감’이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그의 여행 체험과 이 책이 처음 저술된 시점의

* 단국대학교 교수, hjy435@hanmail.net

시간의 간격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 책은 1937년 전후의 여행 체험뿐만 아니라 민족학자로서 그가 경험한 다수의 여행 체험을 종합한 책이다. 따라서 단편적인 여행의 출발이 아니라 인류학자로서 여행이 갖는 의미를 종합할 수 있는 셈이다. 그의 여행은 단순한 견문과 유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조사하는 과정이다. 여기서부터 사람마다 여행의 의미가 동질할 수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 책은 일반적인 여행기와는 달리 쉽게 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은 아니다(이 책은 1973년 박옥출에 의해 번역되어 삼성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또한 2001년 한길사에서 같은 번역자에 의해 재번역되었으며, 이 글에서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는 한길사 발행본이다). 아마도 프랑스로 쓰인 상당수의 책이 그러하듯이, 문장 호흡이 길고 비유적이며 함축적인 표현도 많다. 그 모든 것을 교과서처럼 읽어간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독자들은 제1부가 끝나기도 전에 지쳐서 책을 덮고 말 것이다. 이로부터 두 번째 주제인 ‘읽기 방법’을 환기하는 것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 해야 할 업무가 된다. 다분히 교과서적 표현이지만 읽기는 독자가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은 독자마다 다르다. 책을 읽게 된 동기로부터 책을 선정하여 독서를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제기한 지적 호기심이나 정서적 동기, 읽는 과정에서 호기심을 충족하는 방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행도 마찬가지다. 레비-스트로스는 여행의 ‘출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종류의 책이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인기를 끈다. 여행기, 탐험 보고서, 또는 사진첩의 형태로 된 아마존·티베트·아프리카 이야기들이 서점을 뒤덮고 있는데, 이 책들이 주로 인기만을 염두에 두고 씌어지고 또 편집되었기 때문에 독자는 그 속에 담긴 증언의 가치를 판단할 길이 없다. 독자의 비판력을 깨우쳐주는 커녕 오히려 같은 종류의 흥미 본위의 책들만 계속 찾게 만들어, 그 많은 분량을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키게 해 버리는 것이다. 탐험이라는 것이 이제는 ‘따로 독립한’ 하나의 직업이 되어 버렸다(『슬픈열대』, 106쪽).

많은 여행자들은 일반적으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자 할 때 앞선 여행자들의 경험을 참고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거나 여행기, 탐험 보고서, 사진첩을 보고 자신의 호기심을 최대한 높인다. 레비-스트로스는 선행 체험자들의 기본 자료를 ‘따로 독립한’ 하나의 직업이 산출한 결과물처럼 느낀다. 그것은 『슬픈열대』의 저자가 느끼는 체험일 뿐이다. 그럼에도 그가 말한 ‘직업적 탐험’ 즉 ‘직업적 여행’은 진정한 자신의 여행을 가리는 눈가리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명저 읽기’를 강의하는 나로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자극이 된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자칫 독자로 하여금 그들의 자유로운 의미 구성과 사회적 소통 창구를 왜곡하는 가리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고전’ 또는 ‘명저’라는 칭호에 경도되어 레비-스트로스의 저작물을 숭앙하는 읽기가 되어서도 곤란하다. 그렇기에 이 리뷰는 수차례 『슬픈열대』 읽기 강의를 진행하면서 고민했던 몇 가지의 문제를 가볍게 소화하는 입장에서 서술한 글일 뿐이다.

2. 여행의 의미와 시대 상황

레비-스트로스 읽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수강생들과 가장 먼저 여행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주고 받는다. 국어 문법사를 전공한 나는 국어 교사로 재직하면서 남달리 교과서에 관심을 기울였다. 아마도 문법사나 어휘사와 관련한 연구보다 국어 교육사와 관련한 연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고, 그러면서 무엇이 나의 전공인지 헷갈릴 정도로 학문적 외도(?)가 심했다. 좋게 말하면 학문적 횡단 능력 또는 지식사를 기본으로 하는 종단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학문적 삶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여행이 갖는 근본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성하는 셈이다.

이처럼 학문적 관심사가 다소 산만했을지라도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최초로 한 작업은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부터 일제 강점기, 광복 이후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교과서 수집이었는데, 전국 각지를 돌아 다니며 교과서를 수집하다 보니 다종다양한 문헌을 보는 감식안(?)이 절로 생성된다. 그 결과 조선시대의 문집이나 역사서, 근현대 각종 지식의 유통 경로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식 유통 상황을 체계화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기기도 하였다. 이 과정은 마치 레바-스트로스의 『슬픈열대』 체험과 비슷한 면이 있다.

문제는 고정관념이다. 『슬픈열대』가 단순한 선행 여행자들의 체험을 벗어난다는 데서 출발했듯이, 학문의 세계나 여행이 기존의 경험만을 답습한다면, 그 자체로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이 점에서 나는 첫 시간에 여행의 의미 탐색을 공유하고, 다양한 여행기를 소개하는 일에 주력한다. 그 과정에서 고정관념을 버리는 문제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지적 탐험으로서의 여행,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유길준은 『서유견문』 서문에서 “나는 이번 여행에 하나의 기록이 없을 수 없다 하여, 보고 들은 바를 써 모으기도 하고, 책 가장자리에 고증한 것을 기록하기도 하여 하나의 여행기를 작성했는데, 그 때가 바로 임오년(1882)의 여름이었다.”라고 술회한다(유길준, 『서유견문』, 교운사, 1895, 1쪽, 현대어 번역 필자). 아마도 근대 이전부터 유길준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행 체험을 기록하는 일은 선비로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북경 사신단들이 남긴 다양한 연행 관련 여행기나 일본 사신단으로 참여했던 통신사들의 기록은 여행의 정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당대의 지식 유통 차원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남의 『시대의 창』(경진출판, 2018, 59~60쪽)에 따르면, 근대 이후의 여행 담론은 상당수가 ‘출양견문(出洋見聞)’, ‘장인견식(長人見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 즉 여행은 ‘해외에 나가 견문을 넓히는 일’이자 ‘사람들의 식견을 기르는 일’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점에서 근대 한국인이 남

긴 기행 담론은 다분히 계몽적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기행 체험의 다양성은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 신복룡 교수가 중심이 되어 편역한 ‘한말 외국인 기록’ 시리즈(이 시리즈는 1990년대 후반 신복룡 교수가 중심이 되어 번역하였으며, 집문당에서 발행하였음)를 참고하면, 개항으로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는 서양인들의 조선 견문록이 등장하고,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저술된 여행기는 아직까지 정리조차 안 되어 있을 정도로 많다. 레비-스트로스의 ‘직업화한 탐험’이라는 말은 이러한 여행기를 읽기 전 고민해 볼 좋은 주제의 하나다.

여행의 직업화, 이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해야 한다. 오늘날의 경우 여행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여행사)뿐만 아니라 여행기를 전문적으로 저술하는 사람들, 여행 관련 유튜버 등 모두 직업화된 여행과 관련을 맺는다.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처음 등장하는 때는 1900년대 초이다. 조성운·황민호 외(2011) 『시선의 탄생-식민지 근대 관광』(선인출판사, 2011)에 따르면, ‘관광회사’나 ‘시찰단’이라는 명목의 여행단이 출현한 시점이 이때이다. 이에 따르면 개항 이후 기선이라는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서양 선교사나 외교관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본인이 조선에 입국했고, 갑신정변과 청일전쟁, 갑오개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한 일본인들은 ‘시찰’이라는 명목 아래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여행단을 조직하기 시작한 셈이다. 물론 조선인의 일본 시찰 담론에는 ‘장인견식’의 논리가 작용하며, 일본인의 조선 여행은 경제적 이유 이외에 점차 명승고적에 대한 유람의 즐거움까지 포함된다. 즉 직업적 여행의 역사가 여행을 통한 지적·정서적 자유로움보다는 식민화 과정의 시대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뜻이다. 이 점은 레비-스트로스의 『슬픈열대』와도 어느 정도 맞닿는다.

마침내 나는 폴 르메를르 대위 호의 승선권을 얻어냈고, 배를 타게 된 그날에 가서야 겨우 앞으로 있을 여행이 예사롭지 않으리라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출항 시간이 임박하자 헬멧을 쓰고 경기관총을 지닌 기

동경철들이 부두를 에워싸고, 전송하러 나온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접촉을 막았으며, 주먹질과 욕설로써 작별의 인사말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고독한 모험이 아니라 차라리 죄수들의 출발과 같았다. 하지만 우리를 다루던 그와 같은 태도에 대한 놀라움은 내가 탑승자 수효를 알았을 때의 놀라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모두 합쳐서 7개의 침대와 선실이 두 개밖에 없는 - 내가 지체 없이 확인해 봤던 것인데 - 그 작은 증기선에다 무려 350명을 몰아넣었던 것이다(『슬픈 열대』, 118쪽).

이 묘사는 식민시대 항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레비-스트로스는 1935년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사회학 교수로 취임하기 위한 여행에서 선상의 체험을 이같이 묘사한다. 출항 직전의 검문검색, 350명이나 되는 탑승객을 몰아넣은 선실 등은 1922년 ‘묘지’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염상섭의 『만세전』의 한 장면과도 중첩된다. 물론 레비-스트로스는 상파울루 대학의 예비교수이며, 『만세전』의 이인화(나)는 식민지 조선인 일본 유학생이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느끼는 선실에는 유사한 정서가 있다. 그것은 시대 상황에 주출해 낸 결과물이다. 다만 유사한 장면일지라도 두 사람이 놓여 있는 처지는 동일하지 않다. 그것은 독자가 읽어낼 몫이다.

3. 문명과 야만의 대립 전통과 극복 노력

이제 『슬픈열대』의 본문 속으로 한걸음 더 들여놓아 보자. 이 책은 제1부 ‘여행의 마감’으로부터 제9부 ‘귀로’에 이르기까지 모두 9부로 구성되어 있다. 책 전체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술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제1부 ‘여행의 마감’, 제2부 ‘여로’, 제3부 ‘신세계’는 브라질로 가는 항해 체험과 관련된 것이며, 제4부 ‘대지와 인간’, 제5부 ‘카두베오족’, 제6부 ‘보로로족’, 제7부 ‘남비과라족’, 제8부 ‘투피 카와이브족’은 민족학자로서 브라질 원주민을 만나는 과정을 서술한 부분이다. 제9부 ‘귀로’는 여러 여행 체험을 회

상하며, 자신의 여행이 갖는 의미를 정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자 박옥줄이 해제에서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적 사유에 대한 비판’이라는 제목을 사용한 것은 이 책 전반이 서구인의 문명론에서 벗어나 객관적 시각에서 원주민 문화를 바라보고자 한 노력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해제는 어느 정도 수궁할 점이 있다. 해제에도 드러나듯이, 레비-스트로스의 학문은 ‘마르크스주의’, ‘프로이트 이론’, ‘지질학’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서구 문명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구조주의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구조주의는 소쉬르가 제안했던 ‘체계’와 ‘구조’라는 개념을 토대로 한다. 여기서 ‘체계’란 흔히 ‘선택 가능항의 집합’을 의미하며, ‘구조’란 ‘체계에서 원소(요소)를 선택하여 조합한 결과물’을 의미한다. 한국어학의 경우 ‘ㄱ, ㄴ, ㄷ … ㅈ’이라는 19개 초성들을 집합 개념으로 사용할 때 ‘초성 체계’, ‘ㅈ, ㅊ … ㄱ’에 이르는 21개 중성으로 이루어진 ‘중성 체계’에서 ‘ㄱ’과 ‘ㅈ’를 선택하여 ‘가’를 이룬다면, 그 자체가 구조가 되는 셈이다. 레비-스트로스의 문명관에서도 문명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체계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그 체계 내의 요소들이 하나의 문명을 이룬다면, 구조주의적 사상이 적용되는 셈이다. 그는 이 문제를 『친족의 기본 구조』라는 초기 저서에 적용한 바 있다.

한 종족이 지닌 관습들의 전체적 집결에는 언제나 어떤 특정한 양식이 존재한다. 관습들이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체계들이 수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개별적인 인간 존재와 마찬가지로 인간사회도-그들의 놀이와 꿈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서-결코 절대적인 방식을 창조해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슬픈열대』, 354쪽).

『슬픈열대』에 적용되는 체계는 ‘한 종족이 지니는 관습’이며, 구조는 그 관습들로 이루어진 일정한 ‘삶의 양식’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때의 ‘양식’은 ‘문화’라는 개념과 일치한다. 그러나 나는 이 강의에서 구조주의에 주목하지는 않는다. 해제에도 등장하듯이 언어학적 구조주의와는 달리 자크 라캉,

루이 알튀세르, 롤랑 바르트, 미셸 푸코 등의 구조주의적인 성격은 웬만한 지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일지라도 쉽게 파악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문제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철학 연구가나 문학 비평가들에게 넘겨야 할 문제일 것이다. 또한 그가 연구하고 비판하고자 한 것이 ‘문명’이나 ‘문화’나 라는 개념상의 문제도 여기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는 아니다. 더욱이 레비-스트로스의 저작이 『야생의 사고』, 『신화학』으로 이어짐을 고려할 때, 그의 민족학 전체를 이해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해제에서 강조한 것처럼, 『슬픈열대』에 등장하는 ‘과열된 혹은 동적 사회’, ‘냉각된 혹은 정적 사회’의 이분법적 대립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한다.

아직 별로 오염되지 않은 문명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의 한 마을에 처음으로 당도한 사람을 덮치는 저 깊고도 혼란스러운 인상을 어떻게 정리하여 기술해야 할지 모르겠다. 카인강족에서나 카두베오족에서나 극도의 빈곤이 방문객의 주의를 끌었으며, 방문객이 받는 첫인상은 기진맥진, 그리고 좌절감 그것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있는데다 자기들의 전통에 충실한 하나의 사회를 목격했을 때의 충격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슬픈열대』, 406쪽).

보로로족 탐사에서 레비-스트로스는 ‘오염되지 않은 문명’, ‘기진맥진’, ‘좌절감’ 등이라는 표현을 나열한다. 이 장면에서 그는 ‘선량한 미개인’이라는 부제를 사용했다. 번역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장면에 등장하는 ‘문명’, ‘미개인’ 등은 서구 과학, 특히 진화론이 발달하면서 지속되어 온 개념들이다. 영문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여기서 나는 1719년 발표된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를 떠올린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작품이 모험담이자 창작된 소설로 여기는 듯하다. 그런데 다수의 영문학사 관련 서적을 참고하면 이 작품은 스코틀랜드 셸커크 표류담을 기초로 한 창작물이다. 이 작품은 19세기 이후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에도 다수 번역 유포되었는데, 번역 동기는 ‘표류’, ‘모험’에 있었다(김경남(2022), 한국에서의 ‘로빈슨 표류기’ 번역 양상과 계몽의식의 자제, 『우리말글』 93,

우리말글학회, 201~229쪽 참고). 그러나 이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로빈슨과 그의 시종 ‘프라이데이’의 관계이다. 로빈슨은 항상 위험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한다. 그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인근 섬에 사는 원주민이며, 그들은 이른바 ‘야만인’이다. 그들 야만인은 단순한 미개인이 아니라 ‘인육을 먹는’ 야만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힘으로 그들을 교화해야 한다. 번역 작품마다 이러한 내용과 표현에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야만 = 식인종’이라는 구조는 동일하다. 이뿐만 아니라 1653년 제주도에 표류했던 네덜란드인 하멜의 표류기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타이완을 거쳐 오키나와로 향하던 중 풍랑을 만나 13년 동안이나 조선에 억류되었던 하멜 일행도, 자신들이 처음 상륙한 조선 땅을 ‘야만’으로 간주했다. 물론 하멜은 조선에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 발달된 고급문화를 접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로빈슨 크루소』나 『하멜 표류기』의 근저에는 서구 중심의 문명관과 비서구의 야만이라는 대립 등식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것이 때로는 제국주의 지배 이론으로, 때로는 선교 이론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과열, 동적’, ‘냉각, 정적’이라는 표현은 표면상으로 볼 때 틀린 말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레비-스트로스의 ‘문명 대 야만’의 이분법 극복은 과연 이루어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위의 인용문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는’, ‘자기들의 전통에 충실한 사회’를 자각하는 일은 극복의 단초로 볼 수 있으나, 이 책 자체가 전문적인 문화 분석서가 아니라 여행기 형태의 책이라는 점에서, 원주민 문화를 세밀하게 분석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4. 지식인의 시대와 사회

이 책은 『야생의 사고』, 『신화학』으로 이어지기 전 단계의 체험기이다. 조사 보고서 형태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조사한 내용이 어떤 때에는

자세히 제시될 경우도 있고, 어떤 때에는 단순한 추론 형태로 제시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일종의 욕구 불만을 느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비과라족의 언어를 분석하면서, 자신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하거나, 아메리카 문명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논거보다는 추론에 가까운 진술로 채워가는 등 다소 김빠진 느낌을 줄 때도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은 독자를 편안하게 이끌어 간다. 제4부 ‘대지와 인간’에서 상파울루 교외로부터 내륙으로 이동하는 과정의 ‘도시와 농촌’, ‘황금과 다이아몬드’로 대변되는 광산 도시의 발달과 철도의 역할, 대규모 농장이 발달하는 이유 등이 문학적 서술과 묘사로 채워져 있다.

더욱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카두베오족의 원주민 사회, 보로로족의 생사관, 남비과라족을 만나기 위한 여로의 전신선, 투피 카와이브족과의 만남에서 얻은 자핌새의 소극 등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있다는 점이다. 상파울루 근교의 종려나무로부터 투피 카와이브족의 세린가나무 숲에 이르기까지의 환경은 학자 또는 민족학 조사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자연에 동화된 여행객의 입장에서 그 어느 것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읽을거리가 될 것이다.

이제 글의 마무리 차원에서 레비-스트로스의 ‘귀로’를 살펴볼 차례다. 이 부분은 브라질 여행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가 경험한 여행의 종합적 의미를 담은 부분으로 다소 난해한 면이 없지 않다. ‘신이 된 아우구스투스’, ‘럼주 한 잔’, ‘탁실라 유적’, ‘차웅(불교 사원) 방문’으로 구성된 ‘귀로’에서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등의 여행 체험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비교적 명료하다.

우리는 인간사회에 열려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각 사회는 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선택은 상호 간에 비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의 새로운 문제

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만약 첫 번째 경우에서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것이 아닌 어떤 것을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형태로서의 반계몽주의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의 양자택일적 위험성이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슬픈열대』, 692쪽).

‘동등한 가치’라는 명제는 『슬픈열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의 하나다. 일반적으로 근대 이후 지적 풍토에서 계몽주의는 지적 우열관계를 전제로 한다. 즉 선각자가 미몽 상태를 일깨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개’, ‘야만’으로 간주하던 사회일지라도 실제로 그 사회는 그 자체로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회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열관계는 쉽게 성립되기 어렵다. 이는 계몽주의를 거부하는 반계몽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순간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지식의 형태나 인간의 자유는 그 자체로서 양자택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점은 이 책이 일반적인 여행기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상당수의 여행기는 자신들의 문견(聞見)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러나 『슬픈열대』는 비록 저자가 ‘문명 대 야만의 대립’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을지라도, 그 자체로서 열린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명저이자 고전이 될 수 있는 책이다. ‘귀로’의 마지막 부분은 이를 잘 보여준다.

개인이 집단 속에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각 사회가 여러 사회들 가운데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도 우주 속에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문화의 무지개가 우리의 열광으로 팬허공 속으로 빠져들기를 멈추었을 때, 즉 우리가 여러 있고 또 세계가 존재하는 한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 가느다란 아치는 우리 앞에 그대로 머무를 것이다. 그 아치는 우리의 노예 상태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을 것이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을지라도 단지 그 길을 숙고하는 것만으로써도 우리는 우리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은총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슬픈열대』, 744쪽).

